

사회학의 비교연구방법

김용학*

1. 서론

필자는 사회학의 비교방법에 관한 글을 청탁받았을 때, 다른 인접 사회과학 분야의 비교방법과 차별성이 있는, 사회학에서만 사용하는 비교방법이 따로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를 하였다. 그런데 사회학 분야에서만 사용하는 독특한 비교방법이란 없다고 생각한다. 인류학, 정치학, 경제학 등 사회과학 일반뿐만 아니라 기타 학문에서도 동일한 비교방법과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비트겐슈타인의 언명처럼 논리는 휘지 않으며, 비교를 위한 논리와 방법은 학문마다 다르지 않다. 만일 학문마다 비교방법의 차이가 있다면, 이는 비교방법 자체의 차이가 아니라 방법의 적용대상의 차이, 또는 주로 사용하는 비교방법이 다르다고 인식해야 할 것이다. 독자들도 이 논문집에 실려 있는 다른 학문 분야의 비교방법들도 그 논리에서는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회학에서 개발되고 사회학에서만 사용되는 독특한 비교방법을 찾아내기보다는, 사회학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과학 일반에서 사용하는 비교방법의 논리와 그 특성을 논할 것이다.

비교사회학에서 적용하고 있는 비교방법들을 추출하기 위하여는 먼저 비교사회학의 다양한 연구들을 망라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이 글은 먼저 비교사회학의 연구내용과 방법들을 여러 각도에서 분류한 표들을 정리하고, 이러한 분류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분류의 축(classificatory dimension)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것이다. 이들 공통의 분류축에 조응하는 비교방법들을 추출하고 각각의 방법들의 장단점을 논하고, 각각의 방법에 연관된 쟁점들을 분석하는 것이 이 글의 중요한 목적이다. 이 작업의 결과로 비교방법을 대략적으로 ‘질적 방법’, ‘양적 방법’, ‘비교사적 방법’이라는 3가지로 분류할 것이다. 그 다음에 각각 방법에서 비교논리를 설명한 후, 각 방법들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를 들고, 최근의 방법론적 쟁점에 대한 비판적 논평을 할 것이다.

2. 비교사회학의 유형

사회학에서 주로 적용하는 비교의 방법은 “비교사회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나는 먼저 사회학자들은 이 질문의 답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비교사회학은 일반 사회학과 구분될 수 있는 독자적인 학문영역인가에 대한 논쟁뿐만 아니라(Grimshaw, 1973), 비교사회학이 추구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견해가 등장한다(김용학, 1990). 비교사회학자들은 자신들이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서로 다른 수단으로서 비교방법을 제시할 뿐이다. 비교사회학이 여러 사회를 비교함으로써 “일반 사회이론을 추구하는 학문”이라는 주장을 펴는 사람은 일반화하기가 비교적 쉬운 양적 방법론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비교사회학은 한 사회의 독

특성을 발견할 뿐, 일반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펴는 학자는 주로 질적 방법을 사용한다. 이처럼 비교의 목적과 비교의 방법이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서로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다양한 비교사회학 연구를 분류한 다음 이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비교방법을 찾아내려고 한다.

1) 콘의 분류

콘(Kohn, 1989: 20-23)은 비교사회학이 다른 학문영역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영역이 있다는 주장을 하며, 적어도 '2개 이상의 국가들'이 명백한, 혹은 암묵적인 비교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비교사회학의 특이성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국가를 비교대상으로 다루는 비교사회학 연구를 4가지로 분류한다. 1) 국가를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한 경우, 2) 연구의 맥락으로서 국가를 설정한 경우, 3) 분석의 단위로서 국가를 설정한 경우, 4) 초국가적 성격으로서 국가를 설정한 경우가 그것이다.

1)의 경우에서 연구자의 주된 관심은 주로 연구되는 나라 그 자체에 있으며 다른 국가들은 암묵적인 비교의 대상으로 다루어진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국가복지정책과 일본의 복지정책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기 위해 일본을 연구한다면 특정 국가(들)를 이해하고자 하는 데 주된 관심이 있는 비교연구가 되는 것이다.

2)의 경우는 다른 형태의 사회구조가 행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이때, 구조로부터 오는 강압성을 행위자가 놓여 있는 맥락의 효과로 파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뷰러웨이와 루카스(Buraway and Lukas, 1985)가 행한 미국과 헝가리 공장의 생산성을 비교한 연구는 각 나라의 공장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맥락이 각 공장의 행위자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연구관심을 둔 것이다. 이때 두 공장 사이의 차이점을 맥락의 효과로 돌리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규모나 생산품목 등의 면에서 동일한 공장을 선택하여 비교한다.

국가가 바로 분석의 단위가 되는 3)의 연구에서 국가는 여러 변수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하나의 사례로 다루어진다. 이 경우에 국가는 1)에서와 같이 고유명사를 지닌 주된 연구대상으로서 국가가 아니라, 교육수준, 불평등 정도, 산업화 정도 등의 변수에 구체적인 자료(숫자)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부분의 통계적인 비교국가연구가 3)에 속한다(유석춘·양종희·이수훈, 1993).

4)의 경우는 국가를 거대한 세계체계의 한 구성원으로 다루는 것이다. 각 국가들은 서로 개별적으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상호연관된 연결망의 한 점(node)으로 인식된다. 세계체계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들 사이의 관계망을 연구하면서 연결망에서 특정한 위치를 차지한 국가들을 비교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비교사회학에 대한 콘의 분류는 “국가라는 단위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라는 축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러한 분류는 국가를 비교사회학의 중심대상으로 확립하였다는 장점은 있으나 국가에 대한 연구를 1차원적으로 분류하였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즉, 국가를 단위로 하지 않는 비교사회학자들이 비교사회학의 영역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명의 방식 등 대안적 분류방식이 간과되었다는 단점이 있다.

2) 래긴의 분류

래긴은 비교사회학을 초기에는 사례지향적 연구와 변수지향적 연구로 나누었으나, 후기에는 2차원적 분류를 도입하였다. 그의 분류는 콘의 분류와 맥을 같이 하면서 콘의 분류를 좀더 세밀하게 (3×3)의 표로 재정리해 놓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Ragin, 1989: 66). 래긴의 분류에서 주된 축은 ‘무엇을 설명하는가’의 문제와 ‘설명되는 사회의 사례수’로 나뉜다. ‘무엇을 설명하는가’의 축은 사례의 내재적 성격을 밝히는 연구, 사례의 일반적 특징을 도출하려는 연구 그리고 사례들로 구성된 더 큰 단위의 특징들을 찾아내려는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사례들의 내재적 성격들을 밝히

는 연구는 특정한 사례의 성격을 해석하고 이해하려 한다. 왜 미국의 복지정책은 유럽과 다른가 등의 질문은 미국이라는 특정한 사례를 '이해'하려는 관심에서 나온 질문이다. 두번째로, 사례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밝히려는 비교연구는 특정한 사례 자체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데 관심이 있다. 계급관계가 어떻게 짜여졌을 때 사회혁명이 일어나는가 등의 질문이 이 연구에 속한다. 끝으로 사례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더 큰 단위에 대한 설명의 예로는 세계경제(world economy)나 세계체계에 대한 비교연구를 들 수 있다.

설명대상의 분류 이외에 래긴은 연구되는 사례 수에 따라서 나누는 분류축을 더한다. 그는 하나의 사례만 다루는 경우, 몇몇 사례를 다루는 경우, 그리고 많은 사례를 다루는 연구들로 나누고 있다. 래긴의 분류표는 쿤의 네 가지 분류와 공통되는 면이 있다. 쿤의 '연구대상으로서 국가'는 래긴의 경우에는 주로 사례의 내재적 성격을 다루는 연구들(표1에서 주로 (1)항과 (2)항), '연구맥락으로서 국가'와 '분석단위로서 국가'는 사례들의 일반적 특징을 도출하려는 연구((5)항과 (6)항)와, '초국가적 연구'는 사례들로 구성된 더 큰 단위들의 특징을 찾아내려는 연구((9)항)와 각각

표1 래긴의 비교방법 분류표

무엇을 설명하는가			
사회의 사례수	사례의 내재적 성격들	사례들의 일반적 특징들	사례들에 의해 구성된 더 큰 단위의 특징들
하나	(1) Geertz	(4) Dumont	(7) Chirot
몇몇	(2) Bendix	(5) Moore	(8) Moulder
많다	(3) 사례연구 모음	(6) 1975년 이후의 국제적 통계적 연구들	(9) 1975년 이후의 국제적 연구들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콘의 분류표는 래긴의 2차원적 분류의 대각선을 따라 이루어진 분류라고 해석할 수 있다.

래긴의 2차원적 분류는 콘의 일차원적 분류보다 정교하지만, 콘과 마찬가지로 가로축과 세로축의 분류기준이 얼마나 명확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 있다.

3) 스카치폴의 분류

스카치폴은 비교사에서 기존에 주로 사용된 방법을 이론의 유사증명, 맥락의 대조, 거시인과분석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한다. 이론의 유사증명 방법은 특정한 가설이나 이론이 다양한 일련의 역사적 추이들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가설이나 이론의 효용성을 증명하려는 방법이다. 이 경우, 한 이론이 다른 사례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강조된다. 사례 사이의 유사성에는 깊은 의미가 부여되나, 사례 사이의 차이점은 이론이 적용되는 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맥락적 특수성으로 치부된다. 그러므로 이론의 명백한 적용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효용성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맥락의 대조로서 비교사 연구는 각각의 사례에 내재하는 맥락적 특수성을 발견하여, 그러한 특수성이 일반적인 것으로 추측되는 사회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보여주려 한다. 유사증명의 경우와는 달리, 맥락의 대조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각각의 사례들이 지닌 역사적 특수성이다. 맥락의 대조는 특정한 주제에 따라 전체 역사를 대조하며, 사회학과 역사학의 중간위치에 선다. 총체적으로 풍부한 연대기적 서술의 장점을 지니며, 기존이론의 적용가능성의 한계가 극적으로 밝혀질 수 있는 것은 이 방법을 통해서이다.

마지막 경우는 거시인과분석을 시도하는 비교사이다. 거시수준의 구조적 결과의 원인에 대한 설명가설을 세우고 그것과 관련된 구조적 원인을 추론하는 방법으로 주로 밀(Mill)의 일치법과 차이법(김용학, 1990)이

사용된다. 거시인과분석은 사례의 수는 적지만, 많은 변수들이 인과과정
에 개입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사례수가 한정된 거시현상에 대한 인
과가설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주된 방법인 것이다.

스카치폴의 논의전개에서 명확하지 않은 것은 이론의 유사증명, 맥락
의 대조, 거시적 인과분석이라는 세 가지 방법을 나누는 분류축이 무엇인
가 하는 것이다. 콘의 경우는 국가라는 사례 수가 숨어 있는 분류축으로,
래긴의 경우는 사례 수와 설명대상이 2차원적 분류축으로 사용되었다.
반면에 스카치폴의 경우에는 분류의 축이 명확하지 않은 분류를 제시되
었다. 추측컨대, 역사의 구체성과 이론의 추상성이라는 연속선이 분류축
이 아닌가 한다.

4) 톨리의 분류

톨리(Tilly, 1984)는 19세기 산업자본주의의 발전과 중앙집권적 국가형
성과 같은 거대한 사회현상을 연구하기 위한 비교분석을 세계역사적 수
준, 세계체계적 수준, 거시역사적 수준, 미시역사적 수준 등 네 가지 역
사적 수준으로 나눈다. 세계역사적 수준에서 비교분석은 한 시대의 특징
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인류역사의 흐름 속에 위치시키고자 노력한다. 인
류의 진화, 제국의 흥망성쇠, 생산양식의 변화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세

표2 톨리의 비교사회학 분류

		형태의 다중성	
		하나	다중
경우의 공통점	하나	개별화	포괄화
	모두	보편화	변이모색

계 체계적 수준은 상호의존적인 사회구조들로 구성된 가장 큰 집합내에서 필수적인 연결과 변이를 찾아내고자 한다. 거시역사적 수준에서는 ‘큰 과정과 큰 구조’를 설명하고자 한다. 미시역사적 수준에서는 개인과 집단이 ‘큰 구조와 큰 과정’과 부딪치는(encounter) 과정을 설명한다. 이러한 역사적 수준을 염두에 두고 사회현상을 관찰할 때, 고려해야 할 두 가지 비교의 차원이 있다. 하나의 차원은 ‘공통성’의 정도이고 또 다른 차원은 형태의 ‘다중성’ 정도이다. 따라서 이 두 차원에서부터 각각 네 가지 형태의 비교가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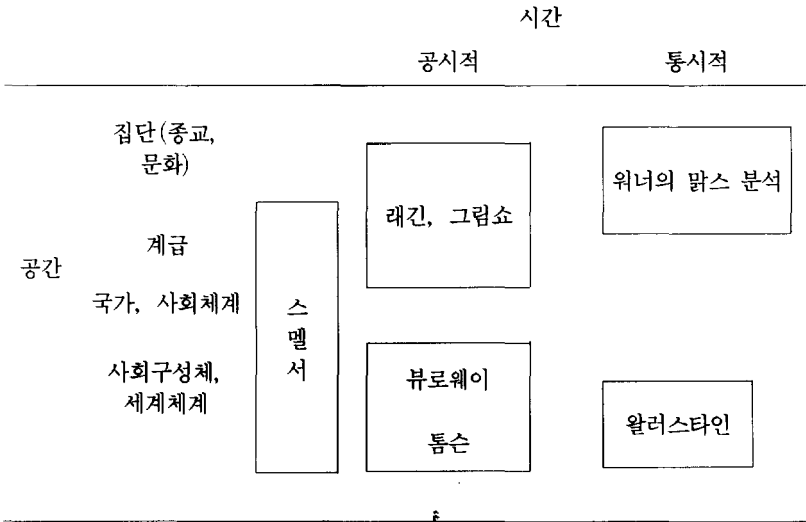
먼저 개별화의 경우에서는 하나하나의 사례를 특이한 것으로 취급하고, 한 시점에서 한 경우를 다루면서 다른 경우들과 비슷한 요소들을 최소화시킨다. 여기에서는 어떤 주어진 현상의 구체적인 경우들을 대조하면서 각각의 사례의 특징들을 포착해 낸다. 보편화의 경우는 한 현상의 모든 경우들 사이의 비슷한 요소들을 밝혀 내고자 하고, 어떤 현상의 모든 경우가 필연적으로 동일한 규칙들을 따른다는 사실을 밝혀내고자 한다. 변이모색적 비교는 경우들 사이의 체계적 차이들을 점검함으로써, 어떤 현상의 성격이나 강도에서 변이의 원리를 확립하고자 한다. 포괄화는 상이한 경우들을 동일한 체계내의 다양한 장소들에다 위치시키고, 그 경우들의 특성들을 전체로서 체계에 따라 변화하는 함수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5) 필자의 분류

필자는 비교사회학내의 다양한 접근들을 시간과 공간의 축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김용학, 1990). 이러한 분류의 장점은 비교사회학이 통시적인가 공시적인가, 혹은 비교대상의 공간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사회학자들의 비교방법분류에서 명시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드러나는 공통적인 분류의 축은 사회과학의 주된 두 가

표3 비교대상의 단위에 따른 분류



지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현실탐구적 과학'과 '법칙추구적 과학'의 흐름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스카치폴의 분류에서 이론의 맥락 대조나 콘의 국가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비교사회학, 래긴의 분류표와 툴리의 분류표의 좌상(左上)쪽의 비교사회학은 현실탐구적인 성격이 강하다. 반면에 콘의 분석단위로서 국가나, 스카치폴의 맥락의 대조, 래긴과 툴리 분류표의 우하(右下)쪽의 비교사회학은 다분히 법칙추구적인, 이론지향적인 연구로 파악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툴리의 분류는 개별화(individualization)전략과 포괄화전략의 축이, 래긴의 분류는 사례지향성과 변수지향성이라는 축이, 스카치폴의 분류에는 일반화 수준의 축이 주된 분류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비교사회학이 추구하는 일반화의 수준에 따라서 비교방법을 대체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질적 비교방법, 양적 비교방법, 그리고 비교사적 방법이 그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법들은 실증주의와 해석학의 대립, 그리고 역사학과 사회학의 대립 등 다양한 인식론적·방법론적 차이

에 따라 달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표4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여 각 논자들이 사용하는 비교사회학의 분류기준을 요약한 것이다.

표4 비교방법 분류기준

구분	콘	래긴	스카치폴	틸리	김용학
비교방법의 분류기준	국가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사례수와 설명대상	이론의 일반성 수준	공통성과 다중성	통시·공시

3. 비교사회학의 중요 방법들

1) 질적 방법

질적 비교방법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현실탐구적 과학(ideographic)과 법칙추구적 과학(nomothetic)의 대립 중에서 전자를 변호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사회학내의 해석학적 전통과 실증주의적 전통 사이의 대립 사이에서 전자의 흐름을 택하는 것이다.

질적 방법론을 동원하는 연구자는 객관화된 이념형을 구축한다. 이 이념형은 논리적 일관성과 의미의 적절성(meaning adequacy)을 지니며, 경험세계에서는 순수형태로 관찰되지 않는 이념형으로서, 비교의 준거기준으로 사용된다. 즉 이념형은 이념형들끼리 비교하거나, 또는 이념형적·합리적 행동유형과 각 사회에서 실제로 행해지는 행위유형을 비교하기 위하여 구축된다. 예를 들어, 사과와 귤을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먼저 과일이라는 이념형을 구축하고, 사과와 귤을 과일이라는 준거기준과 비교하는 것이다. 비교사회학에서 이념형의 비교는 이해의 방법을 수반한다는 것이 베버의 주장이다.

“왜 서구에서 자본주의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왜 중국에서는 자본주의

가 발생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설명에서 이념형을 이용한 이해의 방법의 전형을 발견할 수 있다. 청교도인은 자신이 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존재 인지를 끊임없이 확인해야만 하는 심리적 긴장을 겪고 있다. 이러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들은 금욕적이고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를 하게 된다. 이것이 자본주의 정신의 효시이다. 반면에 중국의 종교에는 이러한 심리적 긴장이 내재하지 않았다. 대신에 유교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였으며, 과거시험을 거쳐 문사계급이 된 사람들은 유교원전의 가르침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다. 주자학이나 양명학에서 볼 수 있듯이, 유교의 발전은 언제나 원전의 재해석이나 그것에 복귀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보였다. 지배계급의 이러한 변화저항적인 생각 때문에 중국에서는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않았다는 설명인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행위의 동기와 의식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가능해진다는 것이 베버가 주장하는 핵심이다. 이해의 방법이란 기온이 떨어진 어느 날, 이웃 사람이 장작을 피우는 모습을 본 관찰자가 그가 추위를 느꼈기 때문에 장작을 피운 것이라는 이해로부터 인과적 관계를 수립하듯이, 행위자의 유의미한 동기와 의식을 이해함으로써 자본주의 발달에 대한 인과관계를 수립하는 방법인 것이다(Abel, 1982).

베버의 영향을 받은 스티치콤(Stinchcombe, 1978)은 ‘깊은 유추’(deep analogy)라는 개념을 발전시킴으로써 베버의 이해(Verstehen)의 방법을 비교사회학의 기초로 삼는다. 유추란 우리가 한 체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때, 그 지식을 적용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그러나 유사한 체계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다(Nisbet, 1970: 240-250). 예를 들어 다윈의 생물체계의 진화에 대한 진화론을 인간사회의 조직군의 변동에 적용할 때 우리는 생물학적 유추를 이용하여 조직이론을 구축한다(김용학, 1987).

스티치콤은 세밀한 역사적 기술(narrative)에 ‘깊은 유추’의 방법을 적용하여 개념을 구축하는 것이 비교역사사회학 이론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혁명에 이르는 일련의 미시적인 역사

적 사건들과 러시아혁명에 이르는 일련의 미시적 사건들은 매우 달라 보인다. 그러나 이해를 수반한 깊은 유추를 하면 이 두 가지 사건들 사이에 유사성이 드러나고, 이 유사성이 사회사이론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깊은 유추 혹은 유추의 심화(deeping analogy)는 비슷한 사례의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확대해 나아간다. A와 B 사이에 공통성이 있고 B와 C 사이에, 또 C와 D 사이에 공통성을 발견하고(pairwise equivalence), 결국에는 A와 D 사이의 공통성을 발견한다(Stinchcombe, 1978: 21).

깊은 유추의 방법을 예시하여 보자. X_1 을 구소련, X_2 를 GM 자동차 회사, X_3 을 행인이라고 하자. P_{1j} 를 직접생산을 하는가의 명제, P_{2j} 를 신입 구성원을 받아들이는 데 규칙이 있는가의 명제, 그리고 P_{3j} 를 단백질 섭취량에 불평등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명제라고 지칭하자. 그러면 $\{X_1 \in P_{1j}, P_{2j}, P_{3j}\}$, $\{X_2 \in P_{1j}, P_{2j}, P_{3j}\}$, 그리고 $\{X_3 \in P_{2j}\}$ 가 된다. 말로 표현하면 구소련과 GM에서는 직접생산을 하고, 신입 구성원을 받아들이는 데 규칙이 있으며, 그 성원들은 불평등하게 단백질을 섭취한다. 반면에 행인에게는 단백질 섭취량에서만 불평등이 있을 뿐이다. 즉 $X_1 \cap X_2 = P_{1j}, P_{2j}, P_{3j}$ 인 반면, $X_1 \cap X_3 = P_{3j}$ 가 된다. 따라서 깊은 유추로 해석을 하면, 구소련과 GM 회사의 속성으로부터 '조직집단'(cooperate)이라는 개념이 도출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Stinchcombe, 1978: 26).

이것을 비교사회학의 방법으로 적용하면, 구체적인 의미에서는 서로 다른 사건들도 깊은 유추를 통하여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고, 이것이 사회이론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혁명에서 나폴레옹과 관계된 사건과 러시아혁명에서 레닌과 관계된 사건은 구체적인 면에서 다르지만, 이를 깊은 유추를 통하여 이해하면, 권위의 획득과 실추과정의 유사성(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고, 이런 유사성이 사회이론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질적 연구방법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와 '검증'(verification)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것은 기어츠(1973)가 문제로 삼고 있는 링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와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1) 아직도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한 듯하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화자의 발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인류학의 철학에서 제기하는 참된 이해문제이다(Hindess, 1988: 5장; MacDonald and Pettit, 1981: 1장). 데이빗슨의 문제제기를 살펴보자(Davidson, 1980; 1984).

데이빗슨은 어떤 문장이나 이방인의 발화를 번역할 경우 그 문장이나 발화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그는 해석자가 “자비의 원리”와 “인간성의 원리”를 가정하여 적용시킴으로써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자비의 원리란 어떤 발화자의 주장이 참이라는 점을 해석자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다른 문화권에 속한 이방인의 발화가 소음이 아닌 언어로서 발화되기 위해서는 발화자가 거짓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발화자가 항상 거짓을 말하면 원초적 상황에서 해석이 불가능함은 자명하다. 물론 그것이 거짓일 수 있는 가능성은 발화자가 발화하는 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명될 수 있다. 가령 같은 여건에서 일관되지 않은 발화를 한다면 발화의 진리치를 의심할 수 있는 것이다.

자비의 원리는 발화자의 문장이나 언명이 참인 것을 알려주지만, 그것이 그 발화와 결합된 행동과의 관련 속에서 참인지 여부를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 발화자의 언명이나 문장이 참이라는 것이 발화자가 행하는 행동과 관련된다는 점을 보증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데이빗슨은 “인간성의 원리”를 도입한다. 이는 해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신념(belief), 욕구(desires), 그리고 세계 사이에 성립하는 관련 양식이 가능한 한 우리(해석자)의 양식과 유사하다”는 가정을 하는 것이다. 쉽게 표현하면, 이방인도 인간으로서 위의 세 가지 사이의

1) 기어츠는 어느 사람이 왕크를 했다면, 이 왕크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눈에 티가 들어가서 깜빡인 것인가, 장난을 시작하자는 개구쟁이 암호인가, 아니면 암호가 들릴까 봐 의미없는 깜빡거림으로 진짜 신호를 감추려는 것인가? 이해의 방법으로는 이들 질문에 확정적인 답을 얻기가 어렵다.

관계가 우리와 똑같다는 것을 가정한다는 것이다. 인간성의 원리는 행위 합리성 (behavioral rationality) 과 태도합리성 (attitudinal rationality) 으로 나뉘어진다. 행위합리성은 의사결정이론의 가정과 흡사한 것으로서, 행위자는 효용의 등급을 매기고, 각 효용과 관련된 사건에 확률을 부여하여, 이에 근거하여 행동을 택한다는 것이다. 즉 이것은 욕구와 신념이 일관되어 있다는 가정이다. 태도합리성은 행위자가 자신의 신념들이 연역적이고 귀납적인 기준들에 순응하도록 신념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가정한다.

데이빗슨의 문제제기는 이방인의 문화의 이해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다는 데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방인도 결국은 해석자와 같은 합리성을 갖고 있다는 강한 가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가정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기여하였지만, 과연 데카르트의 자아 혹은 근대적 자아관으로 이방인의 발화를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남기고 있다.

2) 양적 방법

대부분의 양적 비교방법을 변호하는 학자들은 사회를 비교하는 이유가 각 사회의 특이성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회를 공간적·시간적으로 꿰뚫는 일반법칙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따라서 그들은 여러 사회에 대한 자료를 모아 통계적 규칙성을 밝혀려 한다. 양적 비교방법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일차적인 단순비교: 이 방법은 체계속성 (attributes) 을 비교하는 것이다. 체계의 속성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체계의 구성원들의 속성으로부터 도출한 체계의 속성이다(예: 한국의 평균 교육수준이 베트남보다 높다). 둘째는 구성원의 속성과는 별개로 체계 자체의 속성을 양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전기발전량, 천연자원의 양, 이혼율, 범죄율 등의 비교가 그것이다. 이러한 체계의 속성을 비교하는 방법을 기호로 표시하면,

$$(X_k \Leftrightarrow X_m)$$

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각 사회의 특징을 다른 사회의 양적 수치와 비교함으로써, 각 사회의 성격을 밝히려는 묘사적(descriptive)인 방법이다.

2) 인과관계의 크기 비교: 양적 변수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사회에서 노동자계급이 혁신정당에 투표하는 성향을 다른 사회에서의 노동자계급의 투표행위와 비교하는 것이다. 가령 스웨덴(k)에서와는 달리, 한국(m)에서의 노동계급이 혁신정당을 외면하고 있음을 비교 사회를 통하여 밝히는 것이다. 이를 기호로 표시하면,

$$(X_k \rightarrow Y_k) \Leftrightarrow (X_m \rightarrow Y_m)$$

이 된다. 1)과 2)의 비교에서는 사회체계의 이름, 즉 고유명사가 필수적인 비교의 요소가 된다.

3) 체계의 속성으로 인과관계 설명: 위의 양적 비교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왜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체계에 따라(혹은 문맥에 따라) 다른가이다. 사회체계의 이름인 고유명사를 일반변수로 치환할 수 없는 것인가? 2)의 예에서 한국과 스웨덴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가 산업화의 정도에 따른 차이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면, 즉 투표행위에 나타난 노동자의 계급의식이 산업화 정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밝힐 수 있지는 않은가? 한국이라는 체계의 속성이 낮은 산업화로, 스웨덴의 체계의 속성이 높은 산업화로 규정된다면, 체계내의 관계성(노동자계급과 혁신정당에 투표하는 정도 사이의 관계)이 체계차원의 속성(산업화 정도)으로 설명되는 것이다. 이를 기호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X \rightarrow Y)_k = f(S_k)$$

여기에서 f는 함수관계, S_k는 사회체계 K의 속성을 나타냄

일반화를 위하여 양적 비교방법을 적용하려는 비교사회학자들은 주로 3)의 논리에 입각하여 일반화를 추구한다. 쉘볼스키와 튜니(Przeworski and Teune, 1970)가 비교사회학 고유의 영역을 “체계의 속성이 체계내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사회학”이라고 규정지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방법에서는 ‘나라’나 ‘시간’이라는 제약성이 변수로 치환된다. 사회 체계의 고유명사나 시간적으로 제한된 역사적 문맥을 변수로 바꾸어 일반법칙을 추구하는 것이다.

3-1) 3)의 논리의 일종으로서 체계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체계내의 변수간의 관계성으로 체계의 속성을 설명하는 양적 방법도 있다. 이는 3)의 설명논리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바뀐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각 체계의 경제성장률(체계의 속성)을 체계내의 국가와 시민사회의 상호작용의 빈도로 설명한다면, 위 3)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뒤바뀐 비교 설명의 방법이다. 이를 기호로 표시하면, $(S_k) = f(X \rightarrow Y)_k$ 가 된다.

4) 다차원효과(Multi-level effects) 비교: 양적 비교방법 중 비교적 복잡한 설명형태로서, 체계의 속성과 체계내의 관계성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경우에 종종 쓰인다. 예를 들어서 대학입시생을 둔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8학군에서 공부하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한다. 왜 그런가? 자녀의 능력이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에서 공부하면, 그 능력 이상으로 실력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계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다차원효과(multi-level effect)가 있기 때문이다. 즉, 개인적인 속성(능력)에 학급의 분위기(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음)가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그림1을 통하여 이를 설명하여 보자.

두 집단 사이의 기울기 차이는 능력이 있는 학생들은 주위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을수록 능력이 낮은 학생들에 비하여, 학업성적이 급격히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기호로 표시하면,

$$(X_a \rightarrow Y_{ak}) = f(S_k, S_k * X_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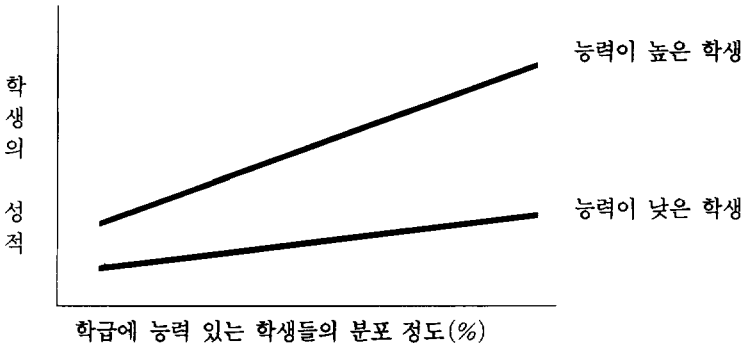


그림1 다차원효과에의 예시

가 된다. 이러한 양적 비교논리는 뒤르켐의 자살론에서 발견할 수 있다.

5) 연결망구조 비교: 이상의 1)부터 4)까지는 속성이나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양적 비교의 새로운 방법으로 체계의 연결망의 구조 그 자체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의가 등장하고 있다.²⁾ 연결망이론 혹은 연결망분석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분석기법은 각 사회에서 연결망의 밀도, 연결망의 중앙집중화 정도 등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음의 가상적인 두 사회의 연결망구조를 비교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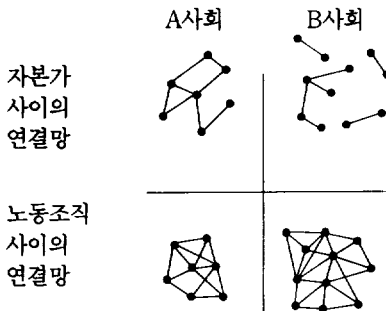


그림2 연결망 구조의 예시

2) 연결망구조의 비교와 비슷한 것으로 집락(clusters)비교가 제안되기도 한다.

A사회가 노동자 사이의 연결망의 밀도에 따른 결속력이나 동원능력 때문에 B사회보다 계급갈등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연결망기법을 이용한 비교연구의 실례는 아직 발견하기 어려우나, 독일과 일본의 조합주의 국가의 차별성을 연구한 노크와 파피(Knoke and Pappi, 1991)의 연구를 대표적인 연구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변수지향적 비교와는 달리 구조(사회관계망의 형태)의 비교라는 점에서 특이성이 있다.

6) 관계의 유형비교: 연결망분석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형태를 연구하는 기법이라면, 이와는 달리, 관계의 유형비교는 집단의 속성이 배열되어 있는 형태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예로, 라이트와 조돈문(Wright and Cho, 1992)의 계급간 이데올로기 비교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미국과 스웨덴의 각 계급의 이데올로기의 분포형태를 비교함으로써, 계급정치의 차이를 설명하려 하였다.

미국				스웨덴			
소유자	전문가	숙련	비숙련	소유자	전문가	숙련	비숙련
---	---	-	---	---	---	-	-
0	-	+	+++	---	---	0	+++
+		+++	+++	0	0	+++	+++

+의 개수는 기업가에 적대적인 이데올로기의 정도를 의미하고 -의 개수는 기업가에 우호적인 이데올로기의 정도를 의미한다.

그림3 미국과 스웨덴의 반기업가 이데올로기의 계급적 분포 유형

라이트와 조돈문에 따르면 스웨덴에서는 미국보다 사회주의운동이 더 활발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스웨덴이 계급의식의 대립이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스웨덴에서는 중간계급의 완충(0으로 표시됨)이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이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 같다. 이러한 예상 밖의 결과를 자세히 검토한 후, 필자들은 미국에서 노동계급의 적대적 계급의식의 강도가(+++) 스웨덴의 0수준밖에는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한다. 스웨덴에서 중간계급의식이 확고한 이유는 복지가 발달하였고, 또한 국가의 복지를 담당하는 국가영역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이처럼 필자들은 계급 사이 의식의 분포형태를 비교함으로써, 비교사회학의 이론을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열거한 양적 방법론의 가장 큰 문제는 타당성과 신뢰성의 확보에 있다(Verba, 1971). 양적 방법은 많은 사회에 대한 자료를 모아야 하는데, 문화와 사회구조가 다른 나라에서 각각의 변수가 의미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 특히 서베이를 통하여 자료를 모을 경우에는 번역의 문제가 생긴다. 타당성의 문제를 예로 들어 보자. 우리 나라에서 재벌을 영어로 대기업(Big Corporation)이라고 번역했을 때, 응답자들이 같은 대상을 염두에 두고 대답할 리가 만무한 것이다. 신뢰성의 문제도 문화에 따라 심각할 수 있다. 서구 학자들은 동양사회에서는 응답자가 솔직한 대답을 하기보다는 조사자의 기분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신뢰성의 문제는 변수들 사이의 공분산의 유형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뢰성이 없는 문항을 제거함으로써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Verba, 1971).

3) 비교사의 비교방법

사회학과 역사학을 통합시켜, 역사에 근거한 사회이론을 만들려는 노력이 비교사라고 할 수 있다. 물역사적(비교)사회이론에 대한 반성으로서, 비교사는 역사학에서 구체성과 사회학에서 추상성을 서로 보완한다는 목표를 설정한다.

역사의 특수성으로부터 제한된 범위의 인과관계의 일반성을 추구하는 비교사의 주된 방법은 존 스튜어트 밀(Mill)이 제안한 일치법, 차이법, 간접차이법 등에 의존하고 있다. 차이법의 기본적인 원리는 간단한 예로 설명이 가능하다. 총 맞아 죽은 사람의 신체적 조건을 총 맞기 전의 신체적 조건과 비교하여, 총상이라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때, 죽음의 원인을 총상이라는 차이에 귀속시키는 방법을 차이법이라고 한다. 일치법을 예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혁명이 일어난 사회들이 다른 모든 면에서 각기 다른데, 국가가 재정난에 시달렸다는 점만이 공통점이었다면 이 공통점에 혁명의 원인을 귀속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일치법과 차이법에 대한 문헌은 상당히 많으므로(Skocpol and Sommers, 1980; Skocpol, 1984: 379; 정진성, 1987),³⁾ 여기서는 비교적 언급이 없었던 간접차이법(indirect method of difference)에 대해서 논하고, 이로부터 비교사의 방법이 갖는 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간접차이법은 두 비교군 사이에 부분적 일치와 부분적 차이를 보일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김용학, 1990). 다음의 예를 살펴봄으로써 간접차이법을 간단히 정리하여 보자.

표5 밀의 간접차이법 예시

독립변수	무역의 형태	종속변수
나라 A: X_1, X_2, X_3	개방무역	부유함
나라 B: X_1	보호무역	가난함
나라 C: X_2, X_3	보호무역	가난함

3) 밀은 일치법과 차이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Mill, 1984). '일치법'은 연구하고 있는 현상에서 둘 이상의 사례가 오직 하나의 사건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면 모든 사례에서 동일한 이 사건이 주어진 현상의 원인이다. '차이법'은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이 발생한 사례와 그 현상을 발생시키지 않은 사례를 비교하였을 때, 전자가 단 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후자가 가지고 있는 사건을 모두 갖고 있다면 그 단 한 사건이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의 원인이 된다.

한 나라의 경제적 부와 빈곤을 설명하는 원인을 찾는 위의 상황에서 만일 X_1 이 한 나라의 빈부를 갈라 놓는 변수라면 X_1 을 갖고 있는 나라 B 역시 부자여야 한다. 그러나 B는 가난하므로 X_1 은 합당한 원인이 될 수 없다. 만일 X_2 가 빈부를 갈라 놓는 변수라면 X_2 를 가지고 있는 나라 C도 A처럼 부자이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논리로 X_3 이 빈부의 원인이라면 나라 C도 부자여야 한다. 그러나 C는 가난하기 때문에 X_2 와 X_3 은 부자의 원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X_1 , X_2 , X_3 을 배제하면 남는 변수인, 무역의 형태가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간접차이법은 차이가 나는 변수들을 분류해내면서 참원인을 찾아 나가는 논리적 절차를 일컫는다.

위의 예에서 드러나는 비교사의 비교방법의 논리적 문제점을 살펴보자. 비교사의 방법은 사례수가 적고 변수 수가 비교적 적을 때 쓰이는 방법이다. 그러나 위의 예에서 드러나듯이 상호작용이 참효과일 때, 이것을 찾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위의 경우에 만일 경제성장의 참원인이 X_1 과 X_2 가 같이 공존하는 것이라면(즉, X_1 과 X_2 의 상호작용이 경제발전의 원인이라면), 무역의 형태와 빈부는 허구적 관계(spurious relation)이다. 그러나 차이법, 일치법, 간접차이법 등 비교사의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상호작용의 효과를 밝혀내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베버가 주장했듯이, 변수 사이의 통계적 경향성 이외에 변수 사이의 관계에 의미적합성(meaning adequacy)을 부여하는 보조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즉, 인과성은 통계적 규칙성뿐만 아니라 의미적합성을 지녀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비교사의 방법 대부분은 속성(attribute)변수와 다른 속성변수 사이의 관계로부터 인과성을 추론하였다. 그러나 관계망의 형태와 그 형태의 효과를 밝히는 방법이 더욱 논리적으로 세련화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 글은 비교사회학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비교방법을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 그리고 비교사의 방법으로 나누어 각각의 절차를 밝히고 그 제한점과 문제점을 밝혔다. 이러한 작업의 선행작업으로 이 글에서 필자는 비교사회학을 분류하려는 시도들을 정리하여, 비교사회학이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다른 방법을 쓰고 있음을 보이려 했다. 다양한 분류들은 각기 다른 분류축으로 시도하였지만, 가장 근본적인 분류축은 역시 비교사회학이 사회 혹은 역사의 구체성을 밝히는 것인가, 아니면 여러 사회를 비교함으로써 사회이론의 일반화를 지향하는 것인가에 근거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질적 방법을 적용한 연구들은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입각하여 행위자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사회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들과,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는 걸로 보기에 다른 거시구조적 현상 사이의 유사성을 깊은 유추를 통하여 밝혀내면서 일반화를 시도하려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질적인 방법의 핵심적인 방법론적 문제는 비교연구에서 신뢰성과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하는가의 문제이다.

양적인 방법은 사례의 수가 많을 때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경향성을 밝힐 때 가장 유용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통계학과 컴퓨터의 발전으로 점차 엄밀하게 개발되고 있으나, 방법의 엄밀성에 대한 문제보다는 국제적 자료의 신빙성에 대한 문제가 더 크게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비교사의 연구는 사례의 수가 제한되어 있는 역사적인 연구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문제는 변수간의 상호작용이 현상의 원인일 때, 그리고 변수 사이의 관계망의 형태가 원인일 때, 이를 밝혀 줄 마땅한 논리적인 절차가 확보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비교사회학의 분류에서 살펴보았듯이, 비교사회학이란 무엇이며, 비

교사회학적 연구란 어떤 방법을 쓰는가에 대하여 한마디로 답할 수는 없다. 밀림의 다양한 나무들처럼 비교사회학 연구는 어지러울 정도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나의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 우월하다는 방법론에 대한 논쟁보다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든 간에, 그 연구의 절차와 결과가 실용적으로 그럴듯(plausible)한가에 논쟁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용학

1987, "Population Ecology Models of Organizations", 《연세사회학》 8.

1990, "비교사회학의 방법과 중요 쟁점들", 《비교사회학: 방법과 실제 I》, 열음사.

유석춘·양종희·이수훈 엮음

1993, 《발전과 저발전의 비교사회학》, 나남출판.

정진성

1987, "스카치볼의 비교역사학적 연구", 《서구사회사이론의 조류》(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제6집), 문학과 지성사.

Abel, Theodore F.

1982, *The Foundation of Sociological Theory*(장준호 역, 《사회학이론의 기초》, 삼영사).

Buraway, Michael and Lukas, Janos

1985, "Mythologies of Work: A Comparison of Firms in State Socialism and Advanced Capitalism",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0.

Davidson, D.

1980, *Essays on Actions and Events*, Oxford: Clarendon Press.

1984, *Inquiries into Truth and Interpretation*, Oxford: Clarendon Press.

Geertz, Clifford

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Books inc.

Grimshaw, A.

1973, "Comparative Sociology, In What Ways Different from Other Sociologies", in *Comparative Social Research*, eds. by M. Armer and Grimshaw,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Hindess, Barry

1988, *Choice, Rationality and Social Theory*, London: Unwin Hyman.

Knoke, David and Franz Urban, Pappi

1991, "Organizational Action Sets in the U.S. and German Labor Policy Domai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6.

Kohn, Melvin L.

1989, "Cross-National Research as an Analytic Strategy", in *Cross-National Research in Sociology*, ed. by Melvin L. Kohn, London: Sage Publication.

MacDonald, Graham and Philp, Pettit

1981, *Semantics and Social Science*, London: RKP.

Mill, J. S.

1984, *A System of Logic Ratiocinative and Inductive*, London: People's Edition.

Nisbet, Robert A.

1970, *Social Change and 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rzeworski, Adam and Teune, Henry

1970, *The Logic of Comparative Social Inquiry*, Robert E. Krieger Publishing Company.

Ragin, Charles

1989, "New Directions in Comparative Research", in *Cross-National Research in Sociology* ed. by Melvin L. Kohn, London: Sage Publication.

Skocpol, Theda

1984, "Emerging Agendas and Recurrent Strategies in Historical Sociology", in *Vision and Method in Historical Sociology* ed. by Theda Skocpo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kocpol, Theda and Sommers, Margaret

1980, "The Uses of Comparative History in Macro-Social Inquiry", *Com-*

parative Studies in Social History 22.

Stinchcombe, Arthur L.

1978, *Theoretical Methods in Social History*, New York: Academic Press.

Tilly, Charles

1984, *Big Structures, Large Processes, and Huge Comparisons*, New York
: Russel Sage Foundation.

Verba, Sidney

1971, "Cross-National Survey Research: The Problem of Credibility", in
Comparative Methods in Sociology: Essays on Trends and Applica-
tions, ed. by Ivan Vallier,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Wright, Eric Olin and Cho, Dommooon

1992, "The Relative Permeability of Class Boundaries to Cross-Class
Friendship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7.

*